

기대만발 군산시의회 파행... 흑시나가 역시나

비공개 의원총회서 소수정당·무소속 시의원들 민주당 시의원간 이견차... 투표 거부로 이어져

초당적 협력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내세운 8대 군산시의회의 흑시나' 했던 기대가 파행을 거듭, 역시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는 매번 그랬듯이 진통을 겪은 끝에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등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지난 4일 군산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배정 및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각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에 소통과 협치를 통한 원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비공개 의원총회까지 개최한 양측은 오전 내내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다.

결국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한 본회의는 고성이 오간 후에 회의 속기 5분 만에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파행을 겪으며 정회했다.

시의회 A 의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군산시의회의 화합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추대하고 최소한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밝혔다.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은 없고 불통에 오만과 독선만 가득한 군산시의회를 보고 있자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부터라도 얼마 전 선거운동 때처럼 의원 자신이 아닌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성토했다.

한편 8대 군산시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김경구 의원을 부의장에 서동완 의원을 운영위원장에 김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조경수 의원, 경제건설위원장에 신영자 의원을 각각 선출했지만 소통과 배려 없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비난은 파하기 어렵게 됐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야시장' 개장

내일부터 10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이하 중매서시장)이 작년 이어 7일부터 10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개장한다.

이번 야시장에서는 익산 중매서야시장의 명물인 '귀신의 집'의 명맥을 잇는 새로운 공포체험과 함께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얼음 자물쇠 열기 등 더욱 다양한 행사를 시장 내 곳곳에서 진행한다.

작년의 야시장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운영을 위해 먹거리 품평회를 진행한다.

또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판매자들은 중매서시장의 대표 상인이 판매하는 전통시장 특유의 구수하고 맛깔스러운 먹거리를 비롯해, 지역 젊은이들의 재기 발랄함을 느낄 수 있는 간식거리와 특색 있는 먹거리까지 다양한 테마의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3대가 즐겨찾는 야시장을 목표로 행사 기간에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체험이 가능한 플라마켓과 추억의 영화상영을 비롯해 월드컵 기념 축구

체험, 중매서만의 귀신들과 함께하는 공포 스포츠 체험 등 각종 이벤트와 공연 등이 시장 전역에 채워져 있어 모든 연령대의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문화향유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야시시, 으시시, 배시시' 야시장을 익산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야시장이 개장하는 7월 7일 전설의 고함을 테마로 한 퍼레이드 및 야시장 로고송을 제작하고, 캐릭터를 만들어 토이패이퍼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는 등 야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상인회연합회장은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과 함께하는 중매서 야시장은 전통시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여름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주민중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흥남동 및 월명동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은 흥남동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월명동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원도심 경쟁력 확보와 사회통합' 사업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이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단위 사업에 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이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지원·역량을 집중해 도시재생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흥남동 일대는 뉴딜 사업 유지를 위한 주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맛집, 전통시장)을 활용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월명동 일대는 2014년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조직인 우체통거리경관정정운영회를 중심으로 주변환경개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축제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원도심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가스안전 타이머' 꼭 소외계층 30세대 설치 지원

익산시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는 최근 관세 개편되고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있는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타이머 꼭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2017년 인화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12세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90% 이상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아 2018년에도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설치 희망하는 세대가 많지만 30세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타이머 꼭은 각 세대 주방 가스호스에 타이머 꼭기계를 설치, 가스 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이 되어 깜박이고 가스 불을 끄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장치이다.

이해석 지역사회 협의회 위원장은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항상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인화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마미닭볶음탕·고구마순 닭개장, 향토음식 지정 성과 거둬

익산시는 마미닭볶음탕(주), 고구마순 닭개장(주) 등 2개 품목이 최근 전라북도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통과, 익산시향토음식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향토음식은 익산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등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이다.

향토음식은 전라북도에서, 향토음식점은 익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익산 대표 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해 2015년도에 원광대학교 신화협력센터(이영은 교수)에 익산대표 음식 발굴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

역 결과 발굴된 대표음식 20개 품목에 대한 시식회를 2018년 2월에 가진 후, 같은 해 11월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2017년 4월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으로 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17년 11월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개최, 기 발굴된 대표음식 20가지 중 마미닭볶음탕, 고구마순 닭개장을 향토음식 대상 메뉴로 선정해 2017년 12월에 전라북도에 향토음식 지정 심의를 신청, 끈질긴 지정 당위성 설명과 지속적인 서류 보완을 통해 2018년 6월 향토음식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전북 최초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

IT 전문가 활약 농업인들 즉각적 반응, 내년에도 유지·확대

익산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시범 운영,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는 IT전문가를 농촌마을에 직접 파견, 농촌 체험관광 경영체 홍보 및 마을 주민들의 특산물 인터넷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중이다.

시는 작년 말경에 고품위로 인해 정보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반 농민들 대상으로 소득 향상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고민하던 중, 중국의 거대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 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사례에 착안, 일반 농민들이 IT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내 여러 오픈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 판매, 농촌체험관광 홍보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거점센터를 운영하기로 결

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IT 전문가 2명을 고용, 관내 농촌 체험 관광 경영체 50여 개소를 직접 순회하며 사업을 설명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농가가 겪고 있는 인터넷 판로 관련 애로 사항을 직접 해결하고 있다.

또한 IT전문가는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며 마을의 유무형 자원과 경영체의 생산품, 각종 농촌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다.

춘포에 소재한 달빛소리 관광농원은 IT전문가의 컨설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엔진에 상위 노출됨으로써 방문자수가 평균 15배 증가했고, 여산에 있는 힐링캠프는 IT전문가의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컨설팅 및 연관 검색어 광고 교육으로 이용객 수가 평균 3배 증가했다.

용포의 익산 곱벵이 농장은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 내에 마련 된 스튜디오

에서 상품을 촬영하고 네이버 스토어 팝 상품 페이지 제작을 마쳐 판매가동 시 매출이 예년보다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산의 연평 향토산업마을은 매달 심심원 이상의 유시 보수료를 납부하며 홈페이지를 운영중이었는데, IT 전문가가 해당 홈페이지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는 현황을 포착하여 유지 보수 조정 등 컨설팅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시는 이처럼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IT 전문가의 활약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본 사업을 유지 및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농촌활력조성사업과 김유열 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소득 정체에 대한 타개책으로 IT전문가들의 지원 활동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절감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이용하여 농촌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박철웅 신임 익산 부시장 내정

신임 익산시 부시장으로 박철웅(57)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6일자로 내정됐다.

익산부시장으로 내정된 박철웅 도 복지여성국장은 의사출신으로 김계시

황산면 출신이다.

전주교과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주시 보건소장, 전북도 보건과장·보건환경연구원장 등



을 역임했다.

신임 박철웅 부시장은 전북도청 재직시 노조에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 김철모 익산부시장은 전북도청 기획관으로 영전한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